

## 공단 산업폐기물 대책 연구

통상산업부는 공단에서 배출되는 산업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대책을 마련키 위해 한국자원리사이클링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 시화·반월공단에 입주한 2천5백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폐기물 처리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월달부터 올해 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서 한국자원리사이클링학회는 광재(슬러지), 분진 등 각종 산업폐기물의 발생량과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개선책을 제시하게 된다.

통상부는 이 개선책을 바탕으로 공단별 특성에 적합한 산업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촉진 대책을 만들어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을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업규모의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지난 93년의 경우 하루 평균 8만1천1백15t이었고 이중 절반 가량이 공단에서 배출됐다.

## 창고형 쓰레기매립장 준공

국내 처음으로 매립장위에 지붕을 씌운 창고형 위생매립장이 준공돼 지난 3월 8일부터 본격가동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이날 군산국가공단내에 총 3만평의 특정폐기물매립장부지를 확보, 1단계로 93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93년 12월 착공한 3천5백평 규모의 창고형매립장이 준공됨에 따라 전북권에서 발생하는 하루 1백t의 특정폐기물을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군산처리장의 준공으로 전국적으로 하루 3천5백t이 발생하고 있는 특정폐기물의 10% 이상을 공공부문에서 처리할 수 있게돼 특정폐기물 처리난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완공된 창고형 매립장은 매립장위에 지붕을 씌워 창고형태로 건설한 것으로 폐기물처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침출수발생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각종 냄새 및 먼지발생을 막을 수 있는 등 위생처리가 가능해 향후 매립장의 기본형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특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은 경기도 화성군의 화성사업소와 경남 울산군 온산면 소재 온산사업소 등 두곳에 있는데 앞으로의 처리 및 매립시한이 2-3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들은 특히 최근들어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 건설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 매립장이 건설된 점을 감안할 때 이른바 님비현상 극복을 위한 수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엔 완공된 시설은 앞으로 2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처리장에 지붕을 설치, 빗물의 유입에 따른 침출수처리비용을 감안할 때 사용기간에 1백25억원의 비용감소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도입

환경부는 사후규제중심의 현행 환경정책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다.

현행 사후규제만으로는 기업으로 하여금 법정 기준치 이하로 지속적인 환경개선노력을 유인하기 어려울 뿐더러 오염저감면에서도 사후처리방식이 비효율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환경부는 제품설계부터 원료조달, 생산공정, 사후처리에 이르기까지 사업활동 전과정에 걸쳐 기업의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기업 경영체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여기에는 WTO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무역과 환경을 연계하여 생산공정까지 문제삼으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업계의 대응을 촉진하고, 최근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중인 환경경영표준규격(ISO 14000 series)의 국내수용을 확산시키자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란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업활동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환경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적극적 개념의 경영방식을 말한다.

환경부는 이 체제의 도입을 통하여 구체적인 환경성

과를 얻도록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성평가 및 개선계획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그 실행을 통해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 계획서에는 오염물질의 사후처리는 물론 생산공정을 포함한 총체적인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적·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기업의 실정에 맞는 개선목표를 제시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이 체제를 도입한 기업에서는 환경부서는 물론 생산부서 등 전조직에서 환경개선노력을 기울여 생산단계에서부터 예컨대 청정연료로의 전환, 폐열회수, 폐수재이용, 폐기물감량, 저오염공정으로의 공법 전환 및 시설 대체 등을 통하여 환경부하를 줄이고, 아울러 최종처리에 있어서도 방지시설의 최적인전조건을 유지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환경부는 이 체제의 보급을 계기로 환경행정당국과 기업간의 불신과 대립적 관계를 청산하고,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업계 스스로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이 체제를 도입한 환경친화적 기업에 한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면제하여 허가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이들 업체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지도단속을 면제하여 그들이 정부의 단속으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나 예측가능성을 갖고 조업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범업소 지정요건으로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의 도입을 명시하여, 그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반드시 이 체제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자가측정 의무 면제, 중소기업의 경우 세계, 금융 등의 우선지원으로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에서는 향후 심사기법과 평가기준을 객관화하여 매년 종합심사 결과 일정한 수의 기업을 순위에 따라 대표적인 환경친화적 기업으로 공표함으로써 환경개선에 관한 기업간 경쟁을 촉진하고, 각종 단체와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가 이들 기업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홍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4월달 부터 이 체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접수하기 시작하여 이들로부터 『환경성평가 및 개선계획서』를 받아 서류심사를 통해 상반기중 참가 기업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이들 기업이 당초 제출한 계획서 대로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종합심사할 계획이다.

종합심사 결과 선정된 우수기업에는 포상과 아울러 각종 행정적 규제 완화 및 지원 등 차별적 지위가 부여된다.

앞으로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에 업계의 호응도가 높아지면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예고된 방문을 통한 현장실사제도를 정착시키고, 불시 지도 단속은 이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에 한정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기업에서 자율적인 환경관리의 도입을 꾀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업계와 공동으로, 예컨대 청정연료사용, 폐수 재이용 또는 저공해 신공법으로의 공정전환 등이 포함된, 생산공정에 있어서의 전과정평가(LCA:Life Cycle Assessment)에 기초한 업종별 세부 환경관리지침을 개발하여 이를 전 산업계에 보급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5월 회보에 게재할 계획임. (편집자)

경력사원모집

당사는 환경계측기기(수질) 전문업체로서 활동적이고 책임감있는 계측기기 영업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모집인원	응 시 자 격
영업팀	남 〇명	환경계측기기(수질) 영업경험자 (30세 미만/전문대학 졸업자에 한함)

-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경력은 자세히 기록할 것)  
 1. .... 1통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1통

- 제출기간 : 1995년 4월 30일까지
- 신청방법 : 서류 전형 및 면접
- 제 출 처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3-4  
 광진B/D 306호(우편접수 가능)  
 문의전화 : (02)862-3290(代)

\* 기타 문의는 전화로 가능하며, 이력서 상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명기 바람.

대양상사